

# “참 행복위해 스스로 만족지수 배워야 해”

산등성이를 훑어 내린 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울리고서 내달리는데 그 소리 끝에 오통나무 향이 실컷 얹힌다. 하늘을 가리고도 남을 커다란 잎사귀를 달고 있는 오통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오통의 보랏빛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는 몸피 좋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여섯 줄을 이고 노는 거문고가 되어 거문고의 깊고도 장중한 소리 세상을 떠돌다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지 모를 일이다.

동화사내 기본선원은 산철인데도 결제를 하여 정진에 정진을 더하고 있었다. 선원 수업을 마치고 바빠 걸어오시는 지환 스님의 몸가짐에서 맑고도 고요한 기운이 느껴진다. 멀리서 볼 때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은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멀리서 볼 때 땀방울을 해도 고요한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선정을 닦은 사람이라 했는가.

지환 스님에게는 초발심 시절을 아물려 주신 두 분의 스승이 계신다. 한 분은 성철 스님이요, 또 다른 한 분은 은사인 광덕 스님이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구도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성철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철 스님께 '사회를 개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려면 너부터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야단을 쳤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를 끝맺기도 전에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요즘도 가끔씩 성철 스님을 꿈에서 뵈는다고 한다.

"수행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듯하게 남들에게 보여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철 스님의 수행 중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은 '철저한 수행'인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단계도 가지 못했어. 철저하려면 일체를 다 버려야 하는데 일체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물질적으로는 최저의 삶을,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할뿐더러 더 존경받는 승가(僧家)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대학생 시절 봉은사의 대학생수도원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때 수도원장이 광덕 스님이었고 그런 연으로 사제지간이 되었다. 광덕 스님이 <월간 불광>을 운영할 때는 모두들 가난한 시절이라 폐간 위기를 두 번이나 맞았다. 그런 광덕 스님을 도와 <월간 불광>의 업무파트와 편집파트를 한 몸이 지고 뛰었다. 두 번의 폐간 위기도 무사히 넘겼다. 한창 공부해야 할 30대 때 9시간짜리 보급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고간 횡수를 어렵잡아 헤아려보아도 70여회가 넘는다. 30대 때 그렇게 일하다 보니 건강도 망가지더라. 그렇지만 보낸 시간들이 아까워 그때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경전연구를 했는지 참선을 철저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견뎌야 할 일생의 교과과정이라 여기니 후회의 맘이 없어지더라.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교과과정이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니 남의 교과과정을 부러워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교과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과

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했다.

지환 스님은 쫓겨 나신 신심을 함부로 내치지 않고 귀히 여겨 출가의 길로 이끌어 준 두 분의 스승이 그저 고맙다면서 "성철 스님과 광덕 스님 두 분의 수행과 사상을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라 한다.

일체 중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또한 행복이기에 지환 스님은 법문을 요청하는 이에게는 '행복론'을 들려준다.

"행복에는 참행복과 거짓행복이 있어요. 밖으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짓행복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과 욕망의 구조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기에 그러한 것을 갈구하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거짓 행복을 얻는데 많은 고통이 동반되고 또 그 행복이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어야 하니, 평생을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스스로가 만족지수를 배워야 합니다. 지족(知足)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밖으로 구하는 행복은 최소화 시키고 참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왜 참행복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내 마음 세계'에 참행복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마음의 속성은 참행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수행해 본 사람은 그 법음(法悅)의 맛을 알아요. 참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그것이 니르바나의 세계요,

다. '삶의 습관, 삶의 습기'를 업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참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업력의 힘이 나를 행복한 과정으로 가도록 쉽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을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하여 불교 강좌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결코 지식불교에 머물러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기초수행 과정부터 불교의 핵심인 무아, 공, 연기의 이 법을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단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다음 올바른 삶을 향해 수행을 한다면 내 오랜 삶의 습기가 바뀌어 질수 있다.

지환 스님은 "간화선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원리가 그대로 다 들어있고 또 간화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기에 아직까지도 좋은 수행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밀하고 수준 높은 수행법이기엔 간화선을 할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금강경>을 통한 관법이나 <심경>을 통한 관법 등 그러한 반야관법 수행을 통하여 거친 마음의 결을 다듬은 다음 간화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야관법 수행을 거치고 나서 간화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여 몇 사람 지도하였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한국의 간화선이 세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쭙자 "대해 스님 이전에도 간화선의 요소는 있었지만, 대해 스님 때 완전히 정착되었어요. 대해 스님은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므로 그 당시 수행풍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진실한 수행 위해 일체를 다 버려야해**  
**간화선, 수행원리 다 있어 가장 좋은 수행법**  
**물질로는 최저 정신으로는 최고의 삶 돼야**

니르바나의 세계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대중들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해듯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장 밖에서 스님의 사자후를 들은 산세 한 마리가 화답이라도 하는 듯 커다란 울음소리를 허공 속으로 내놓는다. 그 때에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마음의 '관성의 법칙'이란 바로 업력이라

간화선을 내놓았기에 그렇게 폭발적인 힘이 있었어요. 간화선의 위대한 장점과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접목되어 새로운 수행방법이 나온다면 세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역량으로는 세계인들을 간화선으로 이끌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불자"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찰의 역할이란. 종교란 결코 기복



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초심자들 중에는 기복(祈福) 불교적 동기로 입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안아주고 받아들여야 해요. 수행이 중하다 해서 기복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중생구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복기도에서 수행기도가 되도록 끌어올려주어야 합니다."


중생들에게 기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기에 지환 스님은 기복불교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는다.

단 기복불교로 입문해서 끝까지 기복불교로 남게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단다. "처음엔 기복(祈福) 단계로 입문했지만, 그 다음은 복을 짓는 작복(作福)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물론 작복에는 '내가 복을 지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는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 제36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 ▶ 수련비 : 200만원
- ▶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b>빙의 치유법</b>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b>전생요법</b>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b>명리학</b>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이든 마누라든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균집쟁제요....
<b>최면학</b>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성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